부모교육연구, 제7권 2호, 2010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7, No. 2, pp. 67-82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 경험 연구
-'룻'의 성경적 자립 모델에 기초*-

강기정 노정자 정은미**

요 약

본 논문은 구약성경 룻기에 등장하는 룻의 적응 경험을 성경을 토대로 내용분석하고,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9명의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15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8개 주제에 대한 17개의 의미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여성인 룻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는 나오미, 보아스, 이웃의 지지가 중요하며, 룻의 영생을 통한 회복, 나오미와 보아스의 가족지지, 이웃의 지지와 축복이 성공적인 적응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기관의 시스템에 신뢰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기관이 일방적인 전도방법을 지양하고, 기관의 자원을 다문화가정 여성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셋째, 영적 회복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섬김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경험과 소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의 실제적 양상을 파악하고, 룻기의 성경적 모델과 비교함으로써 기독교복지 실천의 단초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과 룻기의 성경적 모델을 비교하는 데 있어 보다 깊이 있는 탐색까지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룻기의 룻을 다문화가정 여성으로 성경적 모델로 접근하였고, 기독교 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이 기독교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주제어 :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 룻기, 영적 멘토, 이웃의 지지와 배려

논문제출일 : 2010. 10. 31. 최종심사일 : 2010. 12. 3.
* 2009. 10. 생명신학포럼에서 주제발표한 원고를 요약·정리하였습니다.
** 백석대학교 부교수, 주저자
Corresponding Author : Rho, Jung Ja, Dept. of Social Welfare. Beakseok Culture University, Anseo-dong. Cheonan City, South Korea. E-mail :chng8225 @hanmail.net

I. 서 론

전 세계적인 인구이동에 따라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지속적인 증가와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체류외국인이 115만명에 달해 소위 다인종 · 다문화 사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2010년 2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115만 6천 339명에 결혼이민자는 13만 4천 426명으로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결혼이민자가 11만 7천 148명(87.1%)으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자와 가정의 적응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법무부, 2010. 2).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은 인종, 계급, 젠더, 종교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이주를 결정하는 순간 그들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적응 환경에 놓이게 된다. 즉 이들은 국경을 넘는 이동, 언어문제, 국적을 기초로 한 시민권제도, 경제적 어려움, 낮선 생활환경, 자녀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특히 다신을 숭배하는 동남아 결혼이민자들은 이주국의 전통적인 가정·사회·종교 문화적 터전에서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낮선 땅에서 결혼이민자는 소통과 역동적인 힘을 창출 해 자립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강기정, 2007; 설동훈 외, 2005; 최연실, 2008).

이러한 상황에서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일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의 상황들을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부부의 폭력은 47.7%로 한국인 가정 40.3%보다 높은 편이며, 폭력 유형에서 신체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이 한국인 가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장명선, 2009), 다문화가족의 이혼건수가 11,697건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하고 있다.

이들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07.7)』,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08.6)』, 『다문화가족지원법('08.9)』, 『외국인주민지원 조례('09 현재 206개) 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10년 8월 현재 다문화가족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7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종교단체 및 관련 NGO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결혼성립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결혼중계업소 관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다문화 가족정책에 대한 비판과 지원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기독교는 다민족·다인종을 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영접하여(요 3:12), 하나님의

자녀 되기(요 3:16)를 소망하고 있으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라"(출 22:21)하여 이방인에 관대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명한다. 그러나 각계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담론이 뜨겁고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오늘날의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을 향한 한국 교회의 목회사역을 위한 복지 및 선교 전략과 정책은 매우 초보적 수준이다.

구약성경의 룻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헷세드(인애, 관심, 배려, 사랑, 회복 등)의 실천을 보여 주고 있다. 룻기는 종교와 도덕이 타락하여 국가적으로 혼탁한 정치적 상황과 흉년으로 생산력이 저하되어 빈곤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룻은 이방여인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였고, 남편의 사망과 이주 그리고 재혼이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였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환경이 오늘날과 다르지만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이해하는데 룻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룻기를 토대로 '룻'의 적응과정에 대한 성경적 모델을 찾고, 기독교 기관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한 후, 교회의 다문화가정 사역의 실천 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의 결과는 한국 교회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선교 사역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룻의 성경적 자립 모델

룻기는 사사시대의 경제적·사회적으로 혼동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룻의 이야기 시대는 바벨론에서의 포로기가 끝난 후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모두 금지되었고 특히 모압인들과의 결혼은 더욱 심했다(류호준, 2010). 그러나 모압여인 룻은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가정을 형성하였고, 마지막에 다윗 왕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총을 받았다(캐서린, 2001). 즉 모압 여인인 룻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시켜, 성공적인 다문화가정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룻 1:1,2)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룐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으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룐도 죽었다. "나를 더 이상 즐거움(나오미)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괴로운 여자(마라)라 불러 주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다루셨기 때문입니다"하여 나오미는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비극적인 사건에서 고통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이때 룻은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룻 1:6), '일어났다'하며, 하나님을 믿고 동행함으로 좌절에 빠진 나오미에게 희망을 주고 룻의 다문화가정은 가족공동체로 뿌리 내리게 된 것이다. 즉 "아들이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룻 4:17)라고 외침은 하나님을 통해 나오미 삶의 쓰라림이 풀어지는 장을 보여준다(이중수, 2007).

룻의 성경적 자립과정을 개인, 가족, 공동체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차원에서 룻의 신앙과 인애를 찾을 수 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미를 따르는 지혜로운 태도를 취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 1:17). 룻의 행위는 개인적 신앙과 인애, 그리고 책임감을 통해 하나님의 총체적인 구속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또한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룻 3:10)라 하여, 룻은 동서 오르바와 달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나오미에 대한 인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의 결과 룻은 영생으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가족차원에서 영적 멘토 나오미와 보아스의 배려를 발견하게 된다.다문화가정 여성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요인 중 남편과 가족은 가장 중요한 지지자이다. 국제결혼 초 룻의 남편 사망에 따른 룻의 심리적 충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룻의 상실감은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남편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지자였을 것이다. 나오미는 절망에 빠진 룻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생명을 접하게 한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보아스는 남편으로써 뿐 아니라 공동체의 지지자의 역할을 통해 룻의 성공적인 적응을 돕고 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배려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룻 2:5-6)을 보여주며, 룻을 히브리어 '헤세드'(hesed)'인 인애, 헌신, 현숙함으로 칭찬하였다. 결국 룻은 이방 여인들 중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된다. 룻의 신앙과 인애는 보아스에

서 아들을 낳아 나오미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다.

셋째, 공동체차원에서 이웃의 지지와 사회적 배려가 있었다. 기근과 죽음으로 시작된 룻기는 평화를 사랑하는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지지를 보여준다. 베들레헴에서 유력자인 보아스와 가난한 모압 여성인 룻의 결혼이 공동체의 사랑과 축복 속에 이루어진다. 또한 나오미와 룻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 19:10-11)한다. 사사시대의 이삭줍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권고로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자에 대한 일종의 관습적 차원의 사회적 배려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성경의 ‘룻기’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의 성경적 정착모델 개발을 위해 문헌고찰과 성경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면접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여성의 인식과 경험의 본질적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적응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핵심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아인식은 어떠한가?′, ‘다문화가정 여성은 한국생활 적응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다문화가정 여성은 기독교문화를 접하며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09년 8월 25일부터 9월 20일까지 C 센터의 통번역사와 자국민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9명에게 2회의 그룹 면접과 2회의 개별 면접, 그리고 참여관찰을 하였다. 평균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면접 절차는 기관의 실무자를 통해 연구대상자 선정과 면접일정을 협의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사전 접촉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을 소개하여 면접내용에 대한 비밀보장과 연구 대상자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접은 센터 소회의실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언어가 가능한 한국어강사 2명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한 후 2일 이내에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연구자는 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정보의 단위와 주제 및 개념의 범주와 그에 따라 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이후 자료에 대해 의미를 도출하는 작업을 하며, 도출된 주제와 주제묶음을 원자료와 비교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며 맥락적 일치와 진술의 반영을 확인하였다. 분석된 자료들을 주제에 따라 총체적으로 기술하며 본질적인 구조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진술의 의미에 대해 판단중지를 하였으며, 일관성을 위해 원자료를 연구자가 정리 분석 한 결과에 대하여 한국어강사와 연구 참여자 2인에게 자신들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의 경험을 가진 교수 2인에게 자문 받는 과정이 있었다.

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기관이용 기간과 국제결혼 기간이 각 3년이상의 여성결혼이민자로, C센터에서 통번역사 및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비교적 한국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9명이다. 출신국적은 필리핀 2명, 베트남 3명, 중국 1명, 몽골 1명, 우즈벡 1명, 인도네시아 1명이며 결혼 전 종교는 카톨릭 3명, 불교 3명, 애니미즘 2명, 이슬람교 1명이다. 또한 현재의 종교는 기독교 2명, 카톨릭 2명, 애니미즘 2명, 이슬랄교 1명, 통일교 1명, 무교 1명이다.

IV.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 분석

1.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 경험의 주제와 의미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얻은 한국생활 적응 경험을 일관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여 보편적인 구조로 기술하였다. 총 15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8개 주제에 대한 17개의 의미의 통합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영역별 구성요소

영역	주제	의미의 통합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아 인식'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나는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요. 강요하면 싫어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확~ 풀고 싶어요.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1]'	나, 남편 너무 달라요	말이 안 통해요.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아이 키우기 잘 못해요. 내 아이 희망에요.
	좀 무섭지만, 시어머니(시댁) 짱!	시어머니(시댁) 무서워요. 시어머니(시댁), 울 엄마(가족)에요.
	이웃! 고맙지만, 부담되요	이웃 도와줘서 좋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왜 결혼했니?'
다문화가정 여성의 종교관과 '센터에서의 기독교문화'	기독교! 뭐가 다른가요	신은 똑같잖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되요. 기독교 알고 싶어요.
	센터 '가족'이에요	선생님! 따뜻하고 편안해요. 프로그램 좋아요. 친구들 만나 좋아요.

1) 본 학회지의 원고 분량의 제한으로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영역은 분석내용을 대폭 줄였으며, 이에 관련한 내용은 생명신학실천 포럼 자료집(2009. 10)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아 인식'

①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아 정체감이 높고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려는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국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어려움들을 걱정하였지만, 매스컴에 보여지는 한국과 한국남성에 대한 동경으로 국제결혼을 결정하였다. 즉 내가 선택의 주체라는 정체성이 현재의 이들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결혼할지 많이 생각했어요. 러시아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었어요.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하고 나이트클럽 다니고. 한국 남자들 좋아요. 돈도 벌고 가족들 위해서 잘해주니까(참여자 8).

> 나의 가족과 친구와 멀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러나 잘했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잘 살려고 노력하니까 마음이 좋아요(참여자 2).

인터뷰 대상자들의 상당수가 결혼 전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감에 대해 흔들리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결혼 전 성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장기, 성취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나에 대한 질문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참여자9>는 현재의 자신을 결혼 전과 비교해볼 때 자신감이 떨어져 자기가 조그마해 졌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러나 다 잘될 거에요' 라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들은 차이가 있었지만 '무조건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주변인들의 태도'를 불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남편과 가족, 그리고 이웃(센터 포함)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참견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다. 종교에 대한 권유의 측면에서도 역시 이들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억지스러운 권유는 자유로운 선택의지를 중요시 여기는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있어서 부담스러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다.

>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안돼요. 이렇게 입으면 안돼요. 이렇게 먹으면 안돼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참여자 6).

> 아파트에 와서 막 오버해서 교회 가자고 하니깐... 부담스럽고. 내가 한국사람 아니라고. 어른이잖

아요(참여자 1).

② 나 성공하고 싶어요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한국생활의 적응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점도 가지고 있었지만, 삶에 대한 '희망'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에서 멋지게 살려면(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하였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어요', '확~ 풀고 싶어요' 라고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이국땅에서의 성공에 대한 의지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자긍심으로도 표출되고 있었다. 센터에서 자국 친구를 서포트하는 봉사를 통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는 <참여자 5>는 한국생활에서의 희망과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 우리 여기 공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해요. 어떻게 해야 일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 좋아요..여기 살아가는 방법을(참여자 9).

> 센터에서 봉사하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요. 잘 배워서 센터에서 어려운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해결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어려운 사람도 어려운 상황 넘기고 우리 이민자에게 도움을 줘서, 잘되고 나면 진짜 내가 좋아요(참여자 5).

(2)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생활

① 나, 남편 너무 달라요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국제결혼 후의 한국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부부관계에 대한 이질적인 문화적 차이를 호소하고 있었다. 이들의 어려움은 '말이 안 통해요', '남편은 위, 아내는 아래', '살아가기 너무 달라요'라는 대화내용에서 잘 나타나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한 한국생활은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국말이 어렵다고 한다.

> 한국에서 남자는 위에서요. 여자는 밑에 있고. (나중에) 남편한테 직접 이야기 들었어요. 서로 간에 같이 사랑하면 남자가 밑이면 안 되잖아요(참여자 9).

② 좋은 엄마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 키우는 거 무서워요', '내 아이 희망이에요'로 자녀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국제결혼 이후 불안한 자신의 정체성이 자녀를 통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시댁만으로도 한국생활의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상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를 출산 한 후 자신이 엄마로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었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있어서 향후 자녀들의 학습을 도와주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은 현재 그들을 배움의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 아이들만 보고 있으면 속상할 때도 기쁨이 더 커요. 아이들도 저를 많이 생각해 주고 사랑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 하고 보람 느낀 적 많아요(참여자 1).

> 아이가 초등학교 가는데 내가 한국말 잘 못해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걱정이다(참여자 2).

③ 무섭지만, 우리 시어머니 짱!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시어머니의 지원이 한국생활의 적응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 한국에서 가족 분한테 같이 오래 살았으니까 어려움도 있고, 한국어 많은 도움 받고, 음식 만드는 거, 아이 키우는 거, 제가 생활하는 거, 마음 아픈 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서로 서로 생각하는 거. 시아버지 많이 도와줘요(참여자 1).

④ 이웃! 고맙지만, 부담되요

'이웃 도와줘서 좋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지나친 관심 부담되요' 라며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웃의 무시하는 말과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이웃 사람들과 왕래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결혼 한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결혼했는지 자꾸 물어보는 이웃 아줌마가 싫어서 인사도 안하고 피해 다닌다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이는 한국사회가 다문화가정을 이웃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한국사회는 이처럼 외형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의식구조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의 사회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다문화가정 여성의 종교관과 센터에서의 기독교문화

① 기독교! 뭐가 다른 가요

연구 참여자들은 종교로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신은 똑 같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되요', '기독교 알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 다양한 종교 배경을 가진 연구 대상자들은 기독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개인의 기존 종교에 기독교를 나름대로 이해하려 하였고, 종교로서 기독교를 강요하는 것에는 거부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기도 행위를 하늘에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며, 누구에게 비는 것이든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의 친구들 간에도 각자의 종교 이야기는 묻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이 센터를 편하게 생각하고 이용하는 데는 센터가 강제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강요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신앙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냥 방법만 다른 거 같은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거잖아요. 종교 그거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 열면 괜찮아요. 믿음이 눈에 있는 거잖아요(참여자 9).

> 불교나 기독교나 하는 말이 다 비슷한거 같아요. 몽골에서 이슬람교 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땅 어머니, 하늘 아버지 기도 올리고. 땅을 어머니 하늘을 아버지라 생각해요. 그래서 땅과 하늘에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참여자 5).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한국생활의 적응이 어렵거나, 고국의 가족이 보고 싶을 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가족들 보고 싶을 때, 기도가 힘이 된다'라고 한다. 센터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한 이들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센터 선생님들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선생님에게 물어보거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며,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경우도 있었다.

> 저는 친정이 멀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무슨 일 다 잘하게 해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달라고도 하고 건강도 말하고...기도하면 눈물나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해요. 기도하면 마음 편해요. 기도하면 희망이 보여요(참여자 1).

② 센터 “가족”이에요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센터의 선생님들은 가족, 친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심리적·물리적 공간인 센터를 자국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료의식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센터가 기독교 대학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며, 선생님 모두가 기독교인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국인 친구들에게서 정서적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친구들은 고향이 같거나 한국에서 공부하며 만난 사람들이다. 이들을 만나는 시간에는 모국어를 자유롭게고 사용할 수 있으며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어 좋다고 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대학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다. 센터 건물과 시설이 좋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센터는 만남의 장소이며, 친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이처럼 센터는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있어서 단순히 교육의 장소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한국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한 매개체를 제공해주는 곳이며, 나아가 종교를 얻고, 정신적 지지를 얻게 하는 중요한 기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느낌이 있어요. 가족 같이 따뜻해요. 여기 선생님들이 따뜻하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으면 친구들 안 올 거에요(참여자 1, 9)

> 이거해라 저거 잘못했다 하지 않아요. 내가 말 못해도 다 들어주어요. 항상 웃어서 좋아요(참여자 7, 8)

> 친구 만나면 확~ 가슴이 뚫려요. 속시원해요. 센터에 친구 많아요(참여자 8, 9).

> 센터는 제일 먼저 한국어 배울려고 와요. 여기 공부 너무 좋아요. 다른 곳하고 달라요. 다문화가족 공부 많아요(참여자 3, 4, 5, 6).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 경험을 센터에서 통번역사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구약성경 룻기의 룻의 성경적 적응모델과 비교하며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기독교복지 및 교회의 실천과 관련하여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한다. 룻은 모압여인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였고 남편의 사망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났다'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은혜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나의 삶은 나의 것'으로 진술한 것과 같이 이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긍정적인 자아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생활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성공을 원하지만 결혼전 종교는 대부분 자기 자신과 다신을 믿고 의지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이 룻과 다문화가정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이며, 교회의 선교 전략이 될 수 있다. 인간 중심의 가치관으로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던 <참여자 4>는 하나님을 영접하며 자아 인식과 관계 형성에 변화를 보여주며, 본 연구 시작의 단초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룻의 영생을 통한 회복(신앙)은 성공적인 적응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오늘날 다문화가정 여성의 적응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룻기의 보아스, 나오미, 그리고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한 가족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룻에게 생명을 접하게 해준 영적 멘토이다. 오늘날의 다문화가정에서 보아스, 나오미의 영적 멘토와 지지자를 기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회는 기독교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교육을 실시하며, 순 및 구역단위로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교회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인적·물적 지지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정 여성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문화를 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 룻은 베들레헴 공동체의 사랑이 실천되는 '헷세드'를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이들이 이용하는 센터는 룻기의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기독교문화를 접하고 있었다. 이들은 센터가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하지 않아 편안하였고, 예배와 기도, 찬양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선생님들은 보아스, 나오미의 지지자며 영적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에요?'라는 질문은 룻이 나오미

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삶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넷째, 베들레헴 공동체와 같이 지역사회의 교회는 다양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 교회가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시각을 점검하고 성경적 관점에 대해 설교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존엄하게 지은 피조물로 인정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교회에서 다문화사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결혼이민자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한 후 쌍방향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결혼이민자들은 교회의 일방적인 전도와 강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신을 숭배하는 동남아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하나님과 영혼, 그리고 천국에 대해 자기식의 이미지를 자기고 방법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규모와 지역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가정 사역을 하는 기관들과 네트워크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교회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예를 들어 주일 오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및 문화체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성경일고 쓰기, 다문화가정 배우자를 위한 아버지교육, 다문화가정 부부교육, 절기에 따른 가족축제 등 -을 개발할 수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개발된 다문화가정 대상의 프로그램 - 한국어 교육, 자녀돌봄 지원, 한국음식 및 문화체험, 취업 및 창업 지원 , 가족상담 및 사례관리 등 - 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과 돌봄을 실천하는 사명을 가지고 다문화가정 사역을 시작하여, 룻기의 평화를 사랑하는 공동체와 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기정(2007). 국제결혼 가족복지 지원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12(3). 131-145.

류호준(2010). 여성이여 영원하라. 241-256. 대서.

법무부(2010). 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연보.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보건복지부

이중수(2007). 룻기 강해 -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부흥과 개혁사.

장명선(2009). 폭력피해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연실(2008). 인구통계자료에 나타난 한국인 국제결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학. 26(5). 279-298.

캐서린 두웁 자켄펠드(2001). 룻기. 현대성서주석. 한국장로교출판사.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Black, J. S. and G. K. Stevens. (1989). The influence of the spouse on expatriate adjustment and intent to stay in overseas assignment. Academy of Management Best Papers Proceedings. 101-105.

Elmer, D.(2006). Cross-cultural Servanthood (Serving the World in Christlike Humility). Intervarsity Press.

Grove, C. J. and I. Torbiorn. (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 205-233.

Harvey, M. G. (1996). The selection of managers for foreign assignments: A planning perspectiv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31(4), 102-119.

Todd H. Speidell(2002). On Being a Person: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Personality Theories. Wipf & Stock Publishers.

Wiese, Deborah L. (2004).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al engagement of expatriate spouses during international reloc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Abstract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Multicultural Family Women Adaptation
- As the basis of Ruth -

Kang, Ki-Jung* Rho, Jung-Ja** Jeong, Eun-M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information of international experiences adapted by married woman Ruth based on the Bible appearing in the Old Testament The Book of Ruth, and realizing the Multicultural Family Women's adaptation experiences use by Christian organizations. Using the institution for research for more than 3 year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nine Multicultural Family Women working as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supporters. As a result, a total of 155 meanings was drawn, 17 meanings out of 8 subjects showed integr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use as a basis with respect to the Christian Welfare fulfillment are discuss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have Naomi, Boas, and neighbor's support in building Ruth's happy life and it came out that the factor that proved successful adaptation in her recovery through eternal life is that having Naomi and Boas family's and neighbor's supports and blessings. Second, the Multicultural Family Women have their trust and satisfaction in the system of the organization. Instead of using the one-way method of evangelism, the use of the Multicultural Family Women's characteristics and desires by the organization as resources adequately provided in the process has found to be effective. Thirdly, it was discovered that God is working through people in recovery and restoration of the spiritual relationships and servant's recovery. This study is looking for a glimpse of the Life Theology through comparisons between Ruth's and Multicultural Family Women's actual experiences and opinions which identifies different aspects of understanding. In this study, rather than comparing Ruth's Biblical model and Multicultural Family Women's adaptation to Korean life, eventhough deep inquiry cannot proceed to the limit, as a Multicultural Family Woman Ruth's being a Biblical model has been approached, and the Christian Culture in the process of experiences of the Multicultural Women use by the Christian Institution shows a notable alteration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Women Adaptation, Ruth, Spiritual Mentor, Neighbor's Support and Consider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Christian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 Adjunct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 Director Dept. of Center Management, The Central Offi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